

전일동향

전일대비 5.80원 상승한 1,393.60원에 마감

1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80원 상승한 1,393.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60원 상승한 1,388.4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도 개선돼 상승 흐름 지속됐고, 장 중 한때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외국인 주식순매도를 보이며 달러 매수 우위 흐름 이어가며 1,393.6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7.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58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8.40	1399.50	1388.40	1393.60	1393.60
	엔화	937.70	946.99	934.29	941.58	-
	유로화	1635.40	1643.78	1633.58	1636.08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2	-5.16	-12.17	-23.59
	결제환율(수입)	-0.4	-4.29	-10.29	-20.1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파운드화 급락에...1,39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93.60) 대비 4.35원 상승한 1,395.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영국 재정 불안으로 인한 파운드화 급락에 따른 달러 강세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영국 4~8월 재정적자 규모가 838억 파운드를 기록해 2020년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며 당초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적자가 커지며 파운드화 약세 부담이 커졌고, 이에 미 국채 수익률은 2년물 0.80bp 오른 3.574%, 10년물 2.20bp 오른 4.129% 기록했다. 이는 금일 달러 강세 흐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일 금요일 일본 BOJ는 예상대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는데, 2명의 소수의견이 향후 인상 기대를 형성하며 발표 직후 달러/엔 환율은 상승했으나 유럽 및 뉴욕장에서 보인 달러 강세에 상승폭을 전부 반납했다. 또한,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2개월 만의 유선 회담에서는 관세 유예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시장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틱톡 매각 거래도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고, 10월 APEC에서의 회담을 예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다만, 미국발 위험선호 회복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및 분기말 네고 물량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92.50 ~ 1401.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080.4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35원 ↑
	■ 美 다우지수 : 46315.27, +172.85p(+0.3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1.2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984 억원